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 도 자 료 | 힘내라 대한민국 |
|---|---|---|

**2020년 9월 15일(화) 석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15.(화) 오전 06:00 이후 보도 가능)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배포일시 | 2020. 9. 14.(월) | 담당부서 | 산업통상자원부 항공방위산업팀<br>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<br>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|
| 담당과장 | 이길준 팀장(044-203-4306)<br>제경희 과장(044-203-4910)<br>조준현 과장(02-2079-6440) | 담 당 자 | 유상열 사무관(044-203-4309)<br>정두식 사무관(044-203-4915)<br>박상욱 서기관(02-2079-6441) |

# 우리 국방 우리가 만든 소재·부품으로 지킨다

## - 무기체계 국산화, 산업부-방사청 맞손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와 방위사업청(청장 왕정홍)은 **9.15.(화)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협력**을 위해, **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**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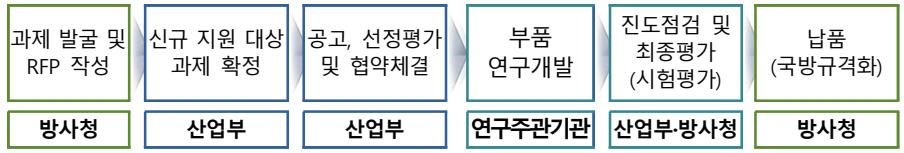
○ 이번 업무협약은 「**소부장 2.0 전략**」**의 후속조치**로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국제 공급망과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한 **방사청 - 산업부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**하였으며,

○ **방산 소재·부품의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을 강화**하여 **방위산업 소재·부품·장비를 육성하는 첫 단추**로서 이번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**방위산업 육성정책이 가시화된 대표적인 사례**로 볼 수 있다.

□ 이번 업무협약으로 **산업부는 개발비 지원 및 과제 관리를 수행**하고, **방사청은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 과제를 발굴 및 기획**하며, **최종 개발에 성공한 부품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이거나 운용할 예정인 무기체계에 실제 사용될 예정**이다.



**< 산업부·방사청 역할 분담(안) >**




□ 산업부와 방사청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**수출 가능성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** 핵심 수입부품의 대체 부품을 **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**이다.

○ 올해 하반기까지 과제를 기획하여 **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**할 예정이며, 내년도 선정 과제는 **향후 5년 동안 총 개발비 750억원 규모로 진행**될 예정이다.

□ **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**은 "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**방산분야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**하고, **방위산업 분야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의 단초**가 될 수 있도록 **양부처가 적극 협력해 나갈 것**"이라고 언급하였다.

○ **왕정홍 방위사업청장**도 "현재 검토 중인 **K-9 자주포용 엔진을 국산화**한다면 **화력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수출 확대에 일조할 것**이며, 국방과 산업의 만남으로 확실한 시너지를 얻어 **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**할 것으로 확신한다"고 덧붙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항공방위산업팀 유상열 사무관(044-203-4309),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정두식 사무관(☎ 044-203-4915,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박상욱 서기관(☎ 02-2079-64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